2025년 실적 발표 속 기업 간 차별화 심화

Hana China Weekly | 2026.3.20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GDS(9698.HK): 매출 증가했으나 순손실은 확대

- 4분기 매출은 29.2억위안(YoY +8.6%)으로 컨센서스 1.1% 상회, 순손실은 4.6억위안을 기록. GPM은 21.0%로 YoY 기준 -0.53%p 하락. 2024년 GDS는 지분 매각으로 대규모 일회성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해당 기저 효과가 제거된 가운데 금융 비용 및 전력비 증가로 손실폭이 확대됨.
- GDS는 실적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Capex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 2026년 Capex 가이던스는 90억 위안으로, 2025년 47억 위안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 중국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정부 정책 지원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수 기준 미국(약 5,400개) 대비 중국(약 500개)로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텐센트(0700.HK): 매출, 순이익 컨센서스 상회, 게임/AI 부문 실적 긍정적

- 3/18 발표한 4분기 매출은 1,944.7억위안(YoY +12.7%)로 컨센서스 0.1% 상회. 순이익은 582.6억위안(YoY +13.5%)으로 컨센서스 5.8% 상회. 4분기 GPM은 30.0%(YoY +3.1%p)를 기록. 특히 중국 게임 부문에서는 <델타포스>, <발로란트 모바일> 등의 자체 개발작이 흥행에 힘입어 YoY 기준 +18% 성장하였으며, 해외 게임 부문 역시 Supercell과 PUBG MOBILE의 견조한 성과를 바탕으로 YoY 기준 +32% 성장을 기록.
- 이번 실적에서 텐센트는 향후 AI 부문이 중장기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2023년 공개한 훈위안은 지속적인 성능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텐센트는 WorkBuddy, QClaw 등의 AI 에이전트를 잇따라 출시하며 AI 응용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임. 2026년 텐센트는 기존 14억 유저 기반의 위챗을 중심으로 게임, 미니프로그램 등으로 AI 기술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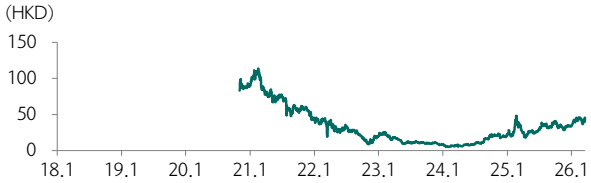
알리바바(BABA.US): 수익성 압박에 직면

- 2025년 4분기(3Q26FY) 매출액은 2,848.4억 위안(YoY +1.7%)으로 컨센서스를 1.7% 하회했으며, 순이익은 163.2억 위안(YoY -66.7%)으로 컨센서스 38.7% 하회.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마케팅 및 영업 비용 증가와 즉시 배송 서비스 및 로컬 커머스 부문의 가격 경쟁 심화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GPM은 3.7%로 YoY 기준 -11.0%p 하락하였으나 QoQ 기준 +1.6%p 상승.
- 클라우드 사업은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YoY +36.4%로 고성장세를 지속. 경영진은 Qwen 모델 등 자체 AI 기술과 기업용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AI 수요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 알리바바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향후 5년 내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사업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알리바바는 매출 성장 둔화 및 이익 급감이라는 단기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및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GDS

상장 국가
홍콩, 미국
섹터
IT 서비스 및 컨설팅
시가총액(조원)
12.8

최근 주가 추이



4Q25 실적: 매출 증가했으나 순손실은 확대

- GDS의 4분기 매출은 29.2억위안(YoY +8.6%)으로 컨센서스 1.1% 상회, 순손실은 4.6억위안을 기록. GPM은 21.0%로 YoY 기준 0.53%p 하락. 2024년 GDS는 지분 매각으로 대규모 일회성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해당 기저 효과가 제거된 가운데 금융 비용 및 전력비 증가로 손실폭이 확대됨.
- 2026년 신규 계약 목표는 500MW 이상으로 YoY 기준 +66%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까지 약 200MW의 확정 주문과 500MW의 MOU로 총 700MW 수준의 계약 규모를 확보하였음. GDS의 주요 수요는 3대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고객 집중도가 매우 높음. 이에 대형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분석됨.
- GDS는 실적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Capex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 2026년 Capex 가이던스는 90억 위안으로, 2025년 47억 위안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 중국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정부 정책 지원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수 기준 미국(약 5,400개) 대비 중국(약 500개)로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텐센트

상장 국가
홍콩, 미국
섹터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888.9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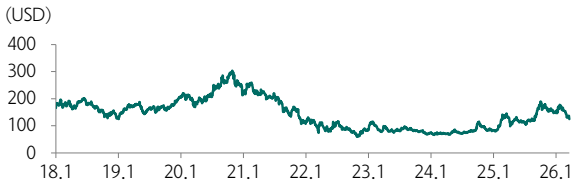
4Q25 실적: 매출, 순이익 컨센서스 상회, 게임/AI 부문 실적 긍정적

- 3/18 발표한 4분기 매출은 1,944.7억위안(YoY +12.7%)로 컨센서스 0.1% 상회. 순이익은 582.6억위안(YoY +13.5%)으로 컨센서스 5.8% 상회. 4분기 GPM은 30.0%(YoY 3.1%p)를 기록. 사업 부문별로는 게임 매출 593.0억위안(YoY +20.5%)/온라인 광고 매출 411.2억위안(YoY +17.5%)를 기록. 특히 중국 게임 부문에서는 <델타포스>, <발로란트 모바일> 등의 자체 개발작이 흥행에 힘입어 YoY 기준 +18% 성장하였으며, 해외 게임 부문 역시 Supercell과 PUBG MOBILE의 견조한 성과를 바탕으로 YoY 기준 +32% 성장을 기록.
- 이번 실적에서 텐센트는 향후 AI 부문이 중장기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2023년 공개한 훈위안은 지속적인 성능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텐센트는 WorkBuddy, QClaw 등의 AI 에이전트를 잇따라 출시하며 AI 응용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임. 2026년 텐센트는 기존 14억 유저 기반의 위챗을 중심으로 게임, 미니프로그램 등으로 AI 기술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알리바바

상장 국가
홍콩, 미국
섹터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445.8

최근 주가 추이



4Q25 실적: 수익성 압박에 직면

- 2025년 4분기(3Q26FY) 매출액은 2,848.4억 위안(YoY +1.7%)으로 컨센서스를 1.7% 하회했으며, 순이익은 163.2억 위안(YoY -66.7%)으로 컨센서스 38.7% 하회.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마케팅 및 영업 비용 증가와 즉시 배송 서비스 및 로컬 커머스 부문의 가격 경쟁 심화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GPM은 3.7%로 YoY 기준 -11.0%p 하락하였으나 QoQ 기준 +1.6%p 상승.
- 클라우드 사업은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YoY +36.4%로 고성장세를 지속. 경영진은 Qwen 모델 등 자체 AI 기술과 기업용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AI 수요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 알리바바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향후 5년 내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사업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알리바바는 매출 성장 둔화 및 이익 급감이라는 단기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및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AI/테크

Moonshot AI(비상장): 4차례 자금 조달 성공

- 3/12 로이터에 따르면 Moonshot AI는 최근 3개월 동안 4차례의 자금 조달을 완료하며 기업가치가 약 4배 확대된 180억 달러를 기록. 이는 중국 유니콘 기업 가운데 최단기간 내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돌파한 사례로, 현재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을 진행 중.

텐센트(0700.HK): AI 에이전트 보안 솔루션 출시

- 3/12 텐센트는 PC Manager에 업계 최초 로컬 AI 에이전트 보안 솔루션인 'OpenClaw Manager'와 AI 안전 샌드박스를 출시. 또한 Tencent Cloud는 향후 40일 내 Lighthouse, ADP, WorkBuddy 등 주요 기술 담당자를 선전, 상하이 등 중국 전역 17개 도시에 파견해 무료 설치 및 프로그램 삭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텐센트의 AI 에이전트 QClaw가 3월 18일 최신 버전을 공개하고 테스트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위챗 진입 경로를 소프로그램 형태로 업그레이드하고 파일 송수신·프리셋 스킬 기능 등을 추가. 시장은 QClaw의 퍼블릭 테스트 확대를 텐센트의 AI 에이전트 상용화 가속 신호로 받아들이며, 향후 AI 서비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연산 수요 확대 기대가 재차 부각. 이에 AI 연산 테마(3/18 +5.6% 상승 마감)도 동반 반등하는 흐름.

알리바바(BABA.US): 모바일 버전 OpenClaw 공개

- 3/12 알리바바 산하 AliCloud에서 모바일 버전 OpenClaw 'JVS Claw'를 정식 출시. AI 에이전트 'Clawbot'의 독립 클라우드 환경 'ClawSpace'를 통해 자연어 명령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자체 동작 지원 기능을 제공할 예정.
- 알리바바 CEO 직속의 'Alibaba Token Hub(ATH)' 사업부 신설 및 B2B AI 네이티브 플랫폼 'Wukong' 사업부 최초 공개. 이외, 산하 DingTalk 팀 주도로 PC/브라우저/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어 및 보안 기능을 갖춘 기업용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곧내 공식 출시 예정. ATH는 토큰 기반 AI 생태계 구축 및 기업용 AI 서비스 통합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알리바바 산하 알리클라우드가 글로벌 AI 수요 급증과 공급망 비용 상승을 이유로 AI 연산·스토리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 이번 조정에서 일부 연산 카드 가격은 5~34%, 파일 스토리지 CPFS 가격은 30% 상향되며,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수급 타이트와 기업향 연산 수요 확대 신호로 해석.

바이두(9888.HK): 의료용 AI 챗봇 개발 중

-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두 산하 Baidu Health에서 의료 AI 챗봇 'DoctorClaw'를 비밀리에 개발 중. 구체적인 제품 형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AI 기반 의료 상담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짐.

미니맥스(0100.HK): 상업화 기업으로의 전환 허가 호가보

- 미니맥스는 홍콩거래소로부터 비상업 기업에서 상업화 기업으로의 전환 허가를 받았으며, 종목명 뒤의 'P' 표기를 삭제해 'MiniMAX-WP'에서 'MiniMax-W'로 변경.

Zhipu AI(2513.HK): GLM-5-Turbo 출시로 투심 개선

- Zhipu AI가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특화된 신규 LLM 'GLM-5-Turbo'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심 개선. GLM-5-Turbo는 OpenClaw 에이전트 생태계에 최적화된 모델로, AI 시스템이 복잡한 자동화 작업 수행 및 외부 툴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됨.

JD.com(9618.HK): 유럽에 당일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 JD.com 산하 유럽 온라인 리테일 플랫폼 'Joybuy'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에 공식 론칭. 주요 도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당일·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자체 물류 역량을 기반으로 한 빠른 배송 경쟁력을 앞세워 Amazon 등 기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3/18 JD Cloud는 클라우드 서버/AI 연산/스토리지 등 주요 서비스 가격을 동결하는 한편, DB/미들웨어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16~40% 가격 인하를 단행. 이는 최근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가격 인상 기조와 대비되는 전략으로 해석됨. 또한 OPPO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으며, 향후 3년 내 JD 플랫폼 내 OPPO 제품 매출 1,000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제시.

AI: ClawNet 출시, 허용 범위 내에서만 작업 가능한 AI 에이전트

- 홍콩 정부 산하 HKGAI(홍콩 생성형 AI 연구개발센터)는 AI 에이전트 간 협업을 위한 오픈소스 네트워크 'ClawNet'을 이번 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해당 시스템은 AI 에이전트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수행하도록 통제하는 거버넌스 기반 네트워크로, 에이전트 간 협업을 지원하면서도 모든 행동이 추적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 각 AI 에이전트에는 사회적 정체성과 명확한 운영 권한 범위가 부여되며, 사람이 최종 승인 권한을 유지하는 구조. 이는 최근 중국 당국이 OpenClaw 등 오픈소스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접근 및 보안 리스크를 우려해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됨.

유비테크(9880.HK): 상하이에서 프로젝트 시행 예정

- 유비테크는 상하이에서 6개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며, 상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라인(연간 3,000대 이상) 구축과 함께 체화지능 연구소 및 글로벌 브랜드 본부 설립 등. 해당 프로젝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전기차/자율주행

샤오미(1810.HK): 세단 SU7 출시

- 차세대 전기 세단 SU7을 3월 19일 오후 7시 공식 출시. 기존 4월 출시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제품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신형 SU7은 전 모델 LiDAR 기본 탑재 및 700 TOPS 컴퓨팅 파워 기반 ADAS가 적용될 예정. 해당 모델은 1월부터 사전판매를 시작했으며 시작 가격은 22.99만 위안으로 테슬라 Model 3과 가격 격차를 축소. 출시 기대감에 3/16 주가는 5.6% 강세 마감.

니오(9866.HK): 자율주행 칩, 완성차 업체와 공급 협상 진행 중

- 니오의 반도체 자회사 Shenji가 Axera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칩 M97(700+ TOPS)의 테이프아웃 이후, 립모터, 지리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대상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 해당 칩은 호라이즌의 J6P 대비 경쟁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3분기 출시 예정,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엔비디아 대체 수요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128 TOPS급 보급형 칩도 병행 개발 중으로, OEM 맞춤형 라인업 확대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시장에서는 니오가 자율주행 칩 내재화에서 외부 공급(Tech licensing + JV 출하)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며, 향후 자동차용 AI 반도체 생태계 내 포지셔닝 강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

지리자동차(0175.HK): 전기차 라인업 확대로 외형 성장 성공

- 3/18 발표한 지리자동차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452.3억위안(YoY +43.7%)으로 컨센서스 1.0% 상회. 순이익은 168.5억위안(YoY +2.2%)으로 컨센서스 0.7% 상회. 전기차 판매 확대와 프리미엄 브랜드 믹스 개선이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특히 Galaxy 및 Zeekr 등 전동화 라인업 비중 확대가 ASP 상승 및 외형 성장을 동시에 이끈 것으로 평가됨.

BYD(1211.HK): 초고속 충전기 유럽에 설치 예정

- 3/16 BYD가 최대 1,500kW 출력의 초고속 'Flash Charging' 충전기를 향후 몇 주 내 유럽에 처음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 이는 Denza Z9GT의 유럽 시장 데뷔(4월 8일 파리) 일정과 맞춘 것으로, 해당 모델은 2세대 Blade Battery를 탑재해 초고출력 충전을 지원할 예정.
- 3/17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BYD (1211.HK), 지리자동차(0175.HK) 등을 자사 로보택시 프로그램에 신규 추가하며 Drive Hyperion 기반 L4 자율주행 협업 확대를 발표. BYD는 기존 칩 협력에서 나아가 차세대 L4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해당 플랫폼을 적용할 예정. 지리자동차는 Zeekr 차량에 Thor 칩을 적용하고 Waymo에 차량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로보택시 생태계 내 입지를 확대 중.

신에너지차: 수소 상업화 확대 정책 발표

- 3/16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3개 정부부처는 수소 산업 상업화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보유 규모를 1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 또한 수소 평균 최종 소비 가격을 kg당 25위안 이하로 낮추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 15위안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립모터(9863.HK): 연간 기준 첫 흑자 전환 성공

- 3/16 발표한 립모터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47.3억위안(YoY +101.3%)으로 컨센서스 2.8% 하회. 순이익은 5.4억위안으로 컨센서스 20.5% 하회하였으나 연간기준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 향후 Stellantis와의 JV를 기반으로 유럽(스페인) 생산 개시 및 해외 확장 가속화가 예정되어 있어, 단순 내수 성장에서 글로벌 OEM으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부각됨.

샤오펑(9866.HK): 플라잉카 사업 2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

- 샤오펑의 플라잉카 사업부 Aridge는 올해 말 대량 생산을 앞두고 약 2억달러 규모의 신규 지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표. 이번 투자에는 기존 Series A 투자자 GL Ventures와 HongShan Capital이 추가 투자했으며 Gaorong Ventures와 Fortune Capital도 신규 참여. 이번 자금 조달로 Aridge의 누적 지분 투자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샤오펑은 이를 통해 아시아 유인 저고도 비행(eVTOL) 산업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됨.

Eve Energy(300014.SZ): 전고체 배터리 2종 출하

- 3/19 Eve Energy는 전고체 배터리 'Longquan No.3' 및 'Longquan No.4' 2종을 양산 라인에서 출하하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진전이 가시화. 청두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생산 역량을 확대 중이며, 2026년까지 연간 100GWh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

허사이테크(2525.HK): ZELOS과 LiDAR 공급 계약 체결

- 허사이테크는 ZELOS과 LiDAR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20만 개의 물량이 ZELOS의 최신 RoboVan 모델에 탑재될 예정. 이번 계약은 스마트 물류 및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에서 LiDAR 수요 확대를 반영하는 사례로, 향후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플랫폼/소비

텐센트뮤직(1698.HK): 매출액,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 상회

-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29.0억위안(YoY +15.8%)으로 컨센서스 0.1% 상회. 순이익은 110.6억위안(YoY +66.4%)으로 컨센서스 0.6% 상회. 4Q25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86.4억위안(YoY +15.9%)/22.0억위안(YoY +12.6%)을 기록.

OPPO(비상장): 폴더블폰 신제품 공개

- 3/17 글로벌 폴더블폰 신제품 Find N6를 공개하며 프리미엄 폴더블 시장 공략을 강화. 신형 힌지 기술을 적용해 화면 주름을 사실상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개선했으며, 가격은 9,999~11,999위안으로 전작 Find N5 대비 1,000위안 인상. 최근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시장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포가 선제적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평가.

미니소(9896.HK): 잠정 실적 제시

- 3/12 미니소는 2025년 연간 잠정 매출 및 순이익 가이던스를 각각 214.4억~214.5억위안(YoY +26.0%)과 28.9억~29.0억위안으로 제시.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5E	2026E	2025E	2026E			
텐센트(0700.HK)	(6.8)	14.4	19.7	10.9	9.7	9.3	12.8	31.6	(2.0)	2026-05-14
알리바바(BABA.US)	(7.6)	22.8	9.1	3.7	10.8	(17.4)	12.7	(43.6)	(4.3)	2026-05-15
징동(JD.US)	(1.1)	9.7	12.4	6.2	6.0	25.3	42.4	31.0	0.4	2026-05-13
트립닷컴(9961.HK)	0.7	12.8	9.8	13.4	12.9	(45.9)	15.4	(38.1)	(0.5)	2026-05-19
텐센트뮤직(TME.US)	(27.5)	10.8	11.8	9.9	9.4	(13.8)	12.0	20.0	(3.3)	2026-05-12
콰이쇼우(1024.HK)	(9.6)	9.9	24.9	12.0	9.5	18.0	15.4	45.4	0.0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2.3)	10.8	17.3	8.3	5.4	12.8	9.9	12.8	0.0	2026-03-26
샤오미(1810.HK)	0.7	19.4	17.9	26.0	13.2	72.2	(10.1)	66.3	(0.8)	2026-03-24
레노버(0992.HK)	(1.4)	9.0	26.6	16.1	8.2	21.6	4.9	11.6	(1.7)	2026-05-22
팝마트(9992.HK)	2.1	19.1	71.8	191.2	34.1	304.6	35.3	302.6	0.0	2026-03-25
미니소(MNSO.US)	0.5	14.5	20.9	25.2	19.3	(26.9)	58.5	281.2	(10.8)	2026-03-20
BYD(1211.HK)	7.0	22.7	17.3	7.6	14.7	(12.1)	26.7	(13.9)	(0.1)	2026-03-27
샤오펑(9868.HK)	(9.4)	-	(5.3)	89.4	36.5	적지	흑자	적지	0.7	2026-03-20
CATL(300750.CH)	4.0	20.9	24.4	33.1	19.7	25.5	43.0	32.6	0.6	2026-04-14
양광전력(300274.CH)	(1.0)	23.9	32.6	24.4	21.0	41.0	19.9	39.8	0.0	2026-04-24
북방화창(002371.CH)	2.4	47.6	19.2	31.6	27.2	24.2	34.7	25.7	0.0	2026-04-27
SMIC(0981.HK)	(8.6)	58.0	4.4	18.7	16.2	43.1	33.4	48.7	0.0	2026-05-08
해광정보(688041.CH)	(8.2)	165.6	13.4	57.2	52.4	59.5	59.1	57.7	0.0	2026-04-07
통푸마이크로(002156.CH)	(3.3)	52.7	8.3	15.2	15.6	80.8	28.0	99.3	0.0	2026-04-16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4.2)	15.8	30.5	69.0	27.8	77.4	25.1	82.0	0.7	2026-04-29
중지쉬창(300308.CH)	12.9	64.5	41.0	58.2	105.6	109.4	120.4	103.0	0.0	2026-03-30
포니AI(PONY.US)	(5.9)	-	(16.7)	16.2	35.5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3-26
위라이드(WRD.US)	(6.3)	-	(20.1)	71.6	80.5	적지	적지	적자	-	2026-03-23
허사이테크(HSAI.US)	1.2	57.7	6.9	51.7	43.0	흑자	54.7	흑자	0.0	2026-03-24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0.7	-	(26.7)	58.0	55.8	적지	적지	적지	1.6	2026-08-27
킹소프트(688111.CH)	(9.4)	62.0	15.1	17.2	18.7	15.5	21.3	17.5	0.0	2026-03-25
중신증권(6030.HK)	4.3	11.1	10.2	(15.1)	9.3	36.8	14.3	43.6	11.1	2026-03-26
평균	(2.8)	32.9	14.7	34.3	26.6	39.1	30.0	57.1	(0.3)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3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